

‘프리츠커 건축상’ 야마모토 리켄 교수 특강 성료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 2024년 수상자 야마모토 리켄 요코하마 국립대 명예교수의 특별강연이 1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다. <사진>

전남대 건축학부,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 건축가회가 주최 및 주관한 이날 강연에는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북대, 금오공과대학, 대구

건축가회 등 전국의 건축 관련 종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Living Together’를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야마모토 리켄은 공동체를 중시하는 도시 건축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야마모토 리켄은 취리히 시를 공화, 중국 텐진도서관, 한국 판교타운 하우스 등을 설계했다. /김미은 기자 mekim@

광주신세계, 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장 표창



광주신세계가 17일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광주전남혈액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이날 광주시 동구 헌혈의 집 총장로센터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 기념행사는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 원장과 김성춘 광주신세계 사원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광주

신세계는 지난 2005년부터 임직원 단체헌혈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김성춘 광주신세계 사원대표는 “지역민이 보내주시는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헌혈 등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광주신세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정효성 조선평대 총동창회장 취임식



조선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정효성·사진)는 지난 18일 조선평대 서석실에서 임원 및 동문, 대학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총회 및 제25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효성(전 국립목포병원장) 현 회장이 제25대 회장으로 다시 추대돼 취임했다.

정 회장은 조선대학교 의학과 27회(1978년 졸업)로 고려대 법학박사 및 경희대 의학박사를 취득했다. 정 회장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동창회장, 한국산재의료원 이사장, 제 10대 국립나주병원장, 전남 순천의료원 제14·15대 원장,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시그니티병원 대표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센트럴윤길중안과

모잠비크 아동 결연 헌판식



굿네이버스 호남충청권역본부(본부장 정용진)는 최근 광주 시 서구에 위치한 센트럴윤길중안과(원장 윤길중)와 모잠비크 33명 해외아동 결연 헌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진>

윤 원장은 굿네이버스 호남충청권역본부 광주지역 후원회장이자 굿네이버스 ‘더네이버스클럽’ 회원으로서 매년 1000만 원 이상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윤 원장은 올해 지구촌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 나눔 캠페인인 해외아동 일대일 결연에서 모잠비크 아동 33명의 꿈을 지원했다.

윤 원장은 “나눔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따뜻한지 경험하게 해준 굿네이버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광주고용노동청,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성룡)은 17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중대재해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뤄진 이날 캠페인은 광주고용노동청이 주관하고 한국산업안전·보

건지조사협회와 대형 건설사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중대재해 감축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유무와 3대 사고유형 및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며 안전보건조치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KT, 광주보훈청과 ‘KT 히어로즈 데이’ 개최



KT 전남전북광역본부(본부장 지정웅 전무)가 최근 광주지방보훈청(청장 하성일)과 함께 라마다플라자 광주 호텔에서 월남전 참전 유공자 50명을 초청해 ‘KT 히어로즈 데이’를 개최했다. <사진>

‘KT 히어로즈 데이’는 KT가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해 예우를 다하고 사회적 관심을 북돋기 위한 보훈문화 확산 프로젝트다.

이날 행사에서는 KT의 IT 서포터즈와 사랑의 봉사단이 준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 미용봉사,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TV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출력(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결혼하자 맹꽁아(재)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감무장 용수정(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930	30 일일드라마 스캔들(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중계방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30 살맛나는 오늘
[11]	05 여긴 어디(재) 10 TV쇼 진품명품(재)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 20 수목드라마 개소리(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살리는 남자들(재)	00 12 MBC 뉴스 25 오늘N(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네모세모(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25 뽀뽀해 좋아 좋아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재) 35 남도지오그래피(재)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출동! 유후구조대(재)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 30 스튜디오 K 스페셜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	10 광주MBC 보다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10 2024 KBO 한국시리즈 1차전 <삼상·KIA>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일일드라마 스캔들		50 SBS 8 뉴스
[8]	30 결혼하자 맹꽁아	30 싱크로유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00 시사타치! 때때부때 30 도시락 스페셜
[10]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라인W	10 서울대 야구부 -우리 한 번만 이겨보자	05 MBC 뉴스데스크 45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1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1]	35 우리 집 곰송아지(재)	25 아이 러브 스포츠 50 스튜디오 K		50 열린예술무대 뒤란
[12]	25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재)		30 스포츠 매거진	50 KBC-희망풍차 공동프로젝트 휴먼다큐 나눔(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40 드래곤 길들이기: 아홉 왕국의 전설
05:3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8:10 EBS 뉴스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3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9:20 고향민국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극한직업	19:50 왔다 내 손주
07:15 모두 함께 부스누!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7:30 슈퍼월드 일렉트릭 히어로즈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볼리비아? 볼리비아! -솔리타의 영혼, 라파스>
07:45 메탈카트S 강철의 귀환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21:35 한국기행
08:00 당동댕 유치원	15:1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추천저격 1부 가을 대물을 찾아서>
08:20 한글용사 아이야	15:55 블록스	21:55 PD로그
08:3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16:10 당동댕 유치원(재)	22:45 EBS 다큐프라임
08:50 레인보우 버블럼	16:30 페파 피그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20 자이언트 팽TV	16:40 마사와 곰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09:40 유아 클래스e	16:55 슈퍼월드 일렉트릭 히어로즈(재)	24:40 EBS 비즈니스 리뷰
10:10 탑골스타 개칭이	17:10 명탐정 피트4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1일(음 9월 19일 戊午)

<p>36년생 단시간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차분하게 도모해야 할 것이다. 48년생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신의 길만 묵묵히 걸어 가면 그만이다. 60년생 과잉 현상은 돌발 상황을 예고하는 징후가 될 것이다. 72년생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84년생 만사를 제쳐 두고 도와 줘야 할 일이 생긴다. 96년생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8, 76</p>	<p>42년생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야만 타개할 수 있겠다. 54년생 방도를 찾지 못해서 몹시 당황하는 모양이리라. 66년생 의심스럽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 보아야만 한다. 78년생 실효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90년생 방도를 세우지 않으면 궁지에 몰릴 수 있다. 02년생 크게 활용될 때가 있을 것이니 잘 두어라. 행운의 숫자 : 08, 87</p>
<p>37년생 필요 이상의 것은 번거로운 뿐이니 적당함이 옳다. 49년생 과욕은 망신살을 부르는 법이니 심신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61년생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진행되리라. 73년생 망설이면서 저울질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85년생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는 형세임을 알아야겠다. 97년생 꼭 가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15, 93</p>	<p>43년생 명분이 이끌리다 보면 실속이 없어지는 법이다. 55년생 헛대도 동저고리 넘어가듯이 걸리는데 얽히기 가볍게 처리할 것이다. 67년생 급한 상황이 되면서 모순점에 대한 인식 능력이 떨어지리라. 79년생 원만한 관계의 형성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91년생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 03년생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행운의 숫자 : 04, 69</p>
<p>38년생 훨씬 앞당겨져서 처리되는 세계이다. 50년생 세밀한 부분까지 정지하게 다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 62년생 향후의 판세 전개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74년생 전체적인 행국에 영향을 줄 만한 정도는 아니니 무시해도 된다. 86년생 경제성까지 따져보는 것이 상책이라 할 수 있다. 98년생 실익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행운의 숫자 : 78, 52</p>	<p>44년생 당황하지만 않는다면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으리라. 56년생 기존에 있었던 것이나 다루기가 용이 하겠다. 68년생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대하라. 80년생 물꼬가 트이면서 연쇄적 작용이 있을 것을 알아야 한다. 92년생 사소한 것에서 단서의 발단이 생긴다. 04년생 임시방편적이라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26, 94</p>
<p>39년생 표리가 일치하니 참됨이 상서로움을 부를 것이다. 51년생 바라보는 각도를 약간만 달리한다면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일 것이다. 63년생 결정적인 판단은 보류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75년생 아차 하는 사이에 혼란의 소용돌이에 서 있을 수다. 87년생 기쁜 일을 맞이함으로써 신명날 것이다. 99년생 전과 똑같다. 행운의 숫자 : 34, 91</p>	<p>45년생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지혜롭다. 57년생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법이다. 69년생 상호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81년생 또 다른 차원의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 93년생 원인을 잘 따져 보아야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05년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43, 68</p>
<p>40년생 주체성과 확고부동한 자기 확신이 절실한 때이니라. 52년생 본격적인 활동으로 들어 가기에 양호한 시기에 이르렀다. 64년생 주된 것보다 부가적 가치가 오히려 클 것이다. 76년생 감당하기 힘들다면 전혀 부담할 이유가 없다. 88년생 비단웃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격이로다. 00년생 개별적 인식이 명확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7, 60</p>	<p>46년생 머뭇거리지 말 것이며, 자신감을 갖고 확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낫다. 58년생 부단한 정진 속에서 해안이 떠오를 것이다. 70년생 당면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82년생 체계 딸린 것을 잘 살펴보고야 할 것이로다. 94년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6년생 집착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33, 75</p>
<p>41년생 범위를 벗어나면 서로가 곤란해진다 것을 잊지 말라. 53년생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65년생 낮에 난 도깨비가 분위기를 흐리게 할 수도 있다. 77년생 어중간하다면 아예 하지 않을 만 못하다. 89년생 자연스러워야 궁극적으로 이룰 수 있다. 01년생 절제된 언행이 뒤따라야만 하겠다. 행운의 숫자 : 07, 66</p>	<p>35년생 복합적 파생 효과가 크다. 47년생 도모하면 바는 이론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59년생 사상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다. 71년생 길성이 왕성해지고 있으니 필히 이루리라. 83년생 사소한 국면에 사로잡히지 말고 편견 없이 대할 일이다. 95년생 허황된 일이 널리 포기할수록 유리하다. 행운의 숫자 : 30, 84</p>